

# 시사원정대 2021-7 월호



##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 주 수업 계획표

1 주 수업 내용

2 주 수업 계획표

2 주 수업 내용

3 주 수업 계획표

3 주 수업 내용

4 주 수업 계획표

4 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 교재 들여다보기

### 1) 커버스토리

최신 시사뉴스에 대한 깊이 있는 배경설명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해설기사.

매달 하나의 시사주제를 골라 쉽고 자세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연관된 배경지식을 알려줍니다. 시사주제를 탐험하고 난 뒤에는 재미가 팡팡 터지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전개합니다.

### 2) 시사뉴스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 3) 창의융합탐험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다룹니다. 과학, 한국어, 경제, 시사이슈, 국제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 4) 문화예술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코너.

문화예술탐험에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까지 폭 넓은 문화, 예술 주제의 기사가 실립니다. 매달 추천도서가 제시되어 함께 책을 읽은 뒤 토론해볼 수 있습니다.

### 5) 리딩북

신문의 사실·칼럼을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2 개의 사실·칼럼을 쉽게 이해하며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영어로 작성된 기사와 그 해석도 담겨 있습니다. 생생한 사진과 함께 국제 뉴스를 읽다 보면 상식을 키우는 것은 물론, 어휘·발음·독해·문법 능력도 향상됩니다.

### 6) 체험학습 비밀미션

체험학습 주제 고르기부터 장소 찾기, 체험 보고서 쓰기까지 한 번에 똑똑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 3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7월호 3주 (90분)		
학습 목표	유엔군 참전의 날과 맥아더 장군에 대해 배운다.		
활동 초점	- 맥아더 장군과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공부한다. - '유스퀘이크'에 대해 알고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 생각해본다.		
구분	2주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b>70~73 한국사 퀘스트</b> - UN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	- 6.25 전쟁 - 인천상륙작전	20
	- <b>74~77 과학지식배틀</b> - 안녕? 징그럽지만 고마운 친구	- 곤충 - 식량 위기	20
	- <b>8~13 맞춤사설</b> - 이준석의 '3가지' 없는 선거	- 당 대표 - 유스퀘이크	40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달 수업 예고	- 6.25전쟁과 맥아더 장군, 유엔군의 상관관계와 역사를 안다.	5

[2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7월호 3주		
학습 목표	유엔군 참전의 날과 맥아더 장군에 대해 배운다.		
활동 초점	- 맥아더 장군과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공부한다. - '유스퀘이크'에 대해 알고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 생각해본다.		
구분	2주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b>70~73 한국사 퀘스트</b> - UN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	- 6.25 전쟁 - 인천상륙작전	15
	- <b>8~13 맞춤사설</b> - 이준석의 '3가지' 없는 선거	- 당 대표 - 유스퀘이크	15
마무리	다음 달 수업 예고,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 활동 안내	- 6.25전쟁과 맥아더 장군, 유엔군의 상관관계와 역사를 안다.	2

## 한국사퀴즈

### UN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 장군

<어휘 Up>

참전용사: 전쟁에 참가한 용감한 군사.

기습: 적이 생각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들이쳐 공격함. 또는 그런 공격.

국면: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

장악: 손안에 잡아 쥐는 뜻으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을 이르는 말.

<퀴즈>

1. 맥아더 장군은 6.25전쟁의 모든 작전을 지휘했다. (O/X )
2.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로,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준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다. (O/X )

정답: 1. X 2. O

<교사 참고자료>

#### [Art&History] 남과 북, 서로를 향해 총부리 겨누다

역사 속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기록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시작으로 근현대까지의 같은 날 있었던 사건들을 한 주 단위로 파악합니다. 이번 주는 6월 23~29일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세요.

####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한 침략으로 6-25 전쟁 발발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맞본 것도 잠시 한반도에는 또 다른 외세인 미국과 소련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3국 외상 회의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이 한국을 5년간 신탁통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탁통치란 강대국이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일정기간 대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한반도에 그어진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1948년에는 남북에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 체제를 택해 대립하던 남북은 38선 인근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도움으로 군사력을 키운 북한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군사분계선인 38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내려온 북한은 3일 만에 수도인 서울을 점령했고 국군은 낙동강 이남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남한의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유엔(UN·국제연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국의 군대가 참여하는 유엔군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둬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압록강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10월 중국군이 북한군을 돕기 시작하면서 국군과 연합군은 한강 이남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38도선 부근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던 남북은 1951년 7월 10일 휴전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협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은 휴전 협정을 맺고 다툼을 멈췄습니다. 3년 여 간의 전쟁으로 한국군 13만 7000명이 숨졌습니다. 유엔군 희생자도 4만 여 명에 이릅니다. 전쟁으로 10만 명의 어린이가 부모를 잃었습니다. 맞서 싸우던 전선은 휴전선이 되었고 한반도는 지금과 같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한 뼉 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비결은?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북한군의 거침없는 진격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은 상륙작전(바다를 통해 적군의 땅에 상륙해 공격을 펼침)이라고 봤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맥아더는 북한군의 경계가 허술한 인천을 통한 상륙을 구상했습니다.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해수면 높이의 차이가 매우 커 인천을 통한 상륙은 어려울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맥아더는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인천 상륙은 적군이 쉽게 예상하지 못할 작전이기에 때문에 오히려 기습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1950년 9월 15일 새벽 개시한 상륙작전에서 유엔군은 2000명에 이르는 적을 쉽게 제압하고 인천을 탈환(빼앗아 찾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맥아더의 생각대로 적군의 감시는 느슨했습니다. 유엔군은 계속 내륙으로 진출해 수도인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어린이동아 2019-06-23]

## 과학지식배틀

### 안녕? 징그럽지만 고마운 친구

#### <어휘 Up>

유전학: 유전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노폐물: 생체 내에서 생성된 대사산물 중 생체에서 필요 없는 것. 날숨, 오줌, 땀, 대변 따위에 섞여 몸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설된다.

배양기: 영양물질을 속에 담아 인공적으로 미생물을 기르는 데 쓰는 기구.

#### <발문>

1. 연구나 식량 목적 외에 또 어떤 분야에서 곤충을 활용할 수 있을까? 상상하여 발표해보자.
2. 내가 싫어하는 곤충은 무엇인지 적고, 백과사전이나 검색을 통해 해당 곤충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없는지 찾아 적어보자.

#### <교사 참고자료>

##### 초파리의 숨겨진 능력, 이런 곤충인지 몰랐지?

달달한 음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 '윙윙~' 소리를 내며 신경을 건드리는 초파리. 날씨가 따뜻해지면 나타나기 시작해 특히 습한 날씨에는 음식 주변에 수십 마리씩 꼬이기도 하는 초파리는 여름철에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곤충이다.

한 자리에서 빙빙 맴돌기만 할 것 같은 초파리가 한 번 날기 시작하면 무려 15 km의 거리도 거뜰히 이동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자기 몸의 600만 배에 달하는 거리를 비행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치면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인 1만km를 한 번에 이동하는 것과 같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연구진은 최근 과학저널 '미 국립학술원 회보'를 통해 미국 모하비 사막에 수십만 마리의 노랑초파리를 날린 뒤 유인 덮으로 포획하는 실험을 거듭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파리의 비행 능력에 놀랐겠지만 이 곤충의 남다른 능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성가시기만 했던 초파리의 숨겨진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 어디서든 무럭무럭

모두 1만30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초파리는 인간과 유전자가 60% 정도 비슷한 곤충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이에 초파리는 실험실에서 약방에 감초(어떤 일이나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 또는 꼭 있어야 할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같은 존재다. 지금까지 초파리로 연구한 논문만 10만 건이 넘을 정도. 심지어 우주도 갔다 왔다. 최초로 우주에 도달한 생명체는 1947년 미국이 쏘아 올린 로켓에 탄 '초파리'였다.

뛰어난 번식 능력을 갖고 있는 초파리는 각종 실험에서 각광받는다. 초파리는 음식 속 당분을 빨아 먹고 그곳에서 번식하는데, 보통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100~200개의 알을 낳는다. 초파리 알은 10일이 지나면 성충(다 자란 곤충)이 돼 또 다시 번식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선 많은 개체 수를 확보해야 실험의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가공할만한 번식 능력을 가진 초파리는 이에 적합한 것.

온도와 습도만 유지해주면 어디서든 잘 자라는 초파리의 환경 적응 능력도 빼놓을 수 없다. 500ml 우유병에 상한 바나나 한 조각만 넣어두면 초파리 200마리가 2주 동안 살 수 있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초파리를 기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초파리는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시간이 몇 주일에 불과하다. 이는 곧? 초파리를 대상으로 실험하면 짧은 시간 안에 세대의 변화를 여러 번 관찰할 수 있다는 말이다.

##### 노벨상 수상의 일등공신?

2~3mm의 아주 작은 몸을 가진 초파리의 뇌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기억력도 좋아 인간의 뇌 연구에 도움을 준다. 초파리는 100년 넘게 치매(기능이나 기억 등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 다운증후군(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유전성 질환), 자폐증(소통 능력 등을 저하시키는 발달 장애) 등의 질병 치료 연구에 활용되며 무려 6명의 과학자에게 노벨상을 안겨줬다. 마이클 로스배시 미국 브랜디스대 교수는 생물학적 리듬을 조절하는 초파리의 유전자를 분리해 밤과 낮의 순환(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당시 "초파리에게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 1월 미국의 연구팀은 초파리를 활용한 연구로 사람의 단기 기억 상실이 발생하는 원리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연구팀이 외부 자극을 통해 일시적으로 초파리의 기억을 상실시킨 뒤 초파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신호 패턴을 분석한 것. 연구를 주도한 로널드 데이비스 교수는 국제학술지 네이처를 통해 "일시적인 기억 상실에 대한 메커니즘(작용 원리나 구조)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람의 단기 기억 상실 연구에 대한 초석(어떤 사물의 기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놓은 것"이라면서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이 인간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동아 2021-05-11]

## 맞춤사실

### 이준석의 '3가지' 없는 선거

#### <어휘 Up>

취임: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감.

야당: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아니한 정당.

직결: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고 직접 연결됨. 또는 사이에 다른 것을 개입하지 않고 직접 연결함.

물량공세: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막대한 인력을 동원하거나 많은 양의 물품이나 자본 따위를 쓰는 일.

공천: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

준엄하다: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매우 엄격하다.

구태의연하다: 조금도 변하거나 발전한 데 없이 예전 모습 그대로이다.

#### <발문>

1.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0선 출신. 이 대표가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본문을 읽고 2가지 이상 정리해보자.
2. '유스퀘이크'로 주목 받는 정치인의 사례를 읽고, 이들이 주목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젊은 정치인의 역할과 정치인의 자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 <교사 참고자료>

#### [눈높이 사실] 공천 자격시험

[1] 비밀의 화원(Secret Garden).... 정치학에선 공천을 이렇게 묘사한다. 오랜 역사의 서구 정당들도 공천 과정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점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너무 점잖은 것 같다. 특정 소수가 공천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거나 ㉠계파 나눠먹기, 줄 세우기가 횡행(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함)해온 우리 정치판에선 차라리 '살생(殺生·생물을 죽임)의 화원' 정도가 더 적합한 표현 아닐까 싶다.

[2] 이런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에 한국 정당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이 도입될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천 자격시험'을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 이 대표는 "공천을 받으려면 기초적인 자료해석 능력,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독해 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비슷한 자격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아프리카 나라 정당이 "교육 수준 미달 및 문맹(글을 읽거나 쓸 줄 모름)인 자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고 하지만, 직무 능력을 테스트하는 공천 자격시험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같거나 비슷한 예)가 없다.

[3] NCS는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약자.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의 필수 코스다. 이를 원용(자신의 주장을 세우기 위해 문헌이나 관례 등을 끌어다 씬)해 공직 후보자가 갖춰야 할 기본 능력에 대한 문항을 설계해 필기와 실기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게 이 대표 구상이다. 다만, 성적순이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처럼 커트라인(일정한 인원을 뽑는 시험에서 합격권에 든 마지막 점수)만 통과하면 된다는 것. 서너 차례 응시 기회를 주고 그래도 통과하지 못하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다. 현직 단체장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시험을 봐야 한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나이가 많은 사람)의 '컴맹(컴퓨터를 다룰 줄 모름) 후보들 사이에선 당장 "정치와 컴퓨터 시험이 뭘 상관이나"는 볼멘소리(통명스럽게 하는 말)가 나온다.

[4] 이 대표는 일단 자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지방의원 등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지역 유지(지역에서 명망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로 행세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줄을 대 공천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을 걸러내고 젊을 때부터 정치권에 진입할 의지가 있는 2030 세대에게 길을 터주자는 취지라면 이 대표가 주창(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함)한 공천 자격시험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5] 자격시험이라는 용어가 거부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학창 시절 공부를 잘해 서울과학교를 거쳐 미 하버드대를 졸업한 이 대표의 '실력 지상주의'(실력을 가장 으뜸으로 삼는 주의)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정의당에선 "시험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 대표의 발상(어떤 생각을

해 념)은 관심을 끌 만하다.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든,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동아일보 6월 15일 자 정용관 논설위원 칼럼 정리

[어린이동아 2021-06-17]